

아~ 새만금! 국민적 화두로 떠올라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시작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지를 촉구하는 삼보일배단이 69일만인 5월 30일 조계사에 도착, 1천여 사부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사진은 조계사에 온 집한 사부대중. 사진=박재원 기자

삼보일배 대장정 65일만에 광화문서 회향

31일, 광화문 '새만금 물결'
삼보일배 5월 31일 서울시청 앞 광장. 지난 해 붉은 악마가 뒤덮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새만금'이라는 화두를 들고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은 목사 등 삼보일배단과 시민 1만여명이 모였다. 삼보일배 65일간의 순례를 회향한 것이다. 하유스님(안동 용수사)의 법고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촉구 및 삼보일배 종교인 기도회'는 장사의·정태춘·범능스님의 새만금궤멸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공연과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중단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 등으로 이뤄졌다.

30일, 명동성당서 조계사까지
30일 삼보일배단은 조계사에 입성했다.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출발한 삼보일배단이 오전 11시 25분 모습을 지켜본 1천여 사부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전국승가학인연합, 도선사, 개원사, 사자암, 구룡사, 의정부 29일, 국회의원 절반님은 지지

조계사 대중전을 참배한 뒤 수경스님은 문규현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흥만한 미소였다. 문 신부도 말없이 웃음으로 화답했다.

평화연대는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98명, 민주당 40명, 자민련 5명, 개혁신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공사 중단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4명의 성직자가 국회의원들까지 감동시킨 것이다.

늘어나는 동참자 삼보일배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한명숙 환경부 장관, 이부영 의원, 장선우 감독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했다. 동참자는 서울인성을 앞두고 현격히 늘어 전 국민적인 이슈로 부각된 것임을 증명했다. 새만금은 더 이상 종교계나 환경단체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1천여 사부대중 박수와 눈물로 맞아 수경 스님, 오랜만에 문신부와 웃음

조계사에 도착하자 성관(조계종 총무부장)·미산(조계종 사회부장)·지홍 스님(조계사 주지)은 일주문까지 나와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

불교사업연합회,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등 불교계에서 절반 이상 참석해 달라진 불교계 사회참여의지와 위상을 실감케 했다.

29일에는 국회의원 272명 중 절반이 넘는 147명(54.1%)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잠정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궤멸 생명

세계연꽃 350종 한자리 '활짝'

상록리조트, 6월29~9월21일 '연꽃축제'

세계의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다. 공무원연꽃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천안 상록리조트(대표 김건희)가 세계의 연꽃 350종을 모아 제1회 세계연꽃축제를 연다. 6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85일간 열리는 이 연꽃 축제에서는 수련 100여종과 홍련, 백련, 외개연, 가시연 등 200여종의 연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남 무안군, 아산 인취사, 김계정 원사 등 연꽃 곤락지인 방죽이나 연못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곳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세계적인 희귀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록리조트는 이 연꽃 축제를 60

여 만 명의 불자와 국민이 관람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시용 화분 1200여개에 연꽃 식재를 마친 상태다. 또 연꽃의 수증 정화 기능과 생태적 효능, 집안에서의 연꽃 재배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연꽃 축제에서는 연꽃 사진전시회, 문화상품 특판, 연꽃 차 시연 등의 특별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다. 이 전시회에 소개되는 연꽃은 공주대학교 서승연 교수(생물학과)가 생태학적으로 연구하고 기록교공주 원로원의 차기전 목사 등이 직접 재배한 500여 종 가운데서 엄선된 것이다.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98년 멸빈징계사 특별법 따라 처리 불교 복지·불교문화센터 건립 추진"

법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회의서 밝혀

멸빈 징계 확정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98년 종단사태 징계사 5인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구성됐던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법장스님은 5월 2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호계원장 월서스님으로부터 이들(5인) 문제가 아직 특별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성원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라'는 결의문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종원 개정 없이도 이들에 대한 사면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장스님은 또 "현재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와 전통불교문화센터(중앙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고지원을 놓고 정부와 협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들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동국대 불교병원 개원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명우 기자 mwuan@buddhapia.com

6·15 남북공동선언 3돌

조불련, 동시법회 제의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6·15 남북공동선언 세 돌을 맞아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서기장은 5월2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보낸 전문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종단협은 "지난 2년간 동시법회를 열었던 만큼 올해도 법회를 병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86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서부: (055)547-3469

www.dhsystem.co.kr

불자들에게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대중방이 정리기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의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空間藝術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시찰 납품 대표 모델 • 범종사 • 삼운사 등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불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진동 733-7 (남동공단 167블럭 8롯데)
TEL: (032)822-0022-30 FAX: (032)822-0033
소비자보호센터: (032)822-0030